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제 목 : 2013년 8월 8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

“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”

(붙임 참조)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차장 장정수

Tel : 759-4066 Fax : 759-4485 E-mail : cschang@bok.or.kr

공보실 : Tel (02) 759-4015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

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

[정책결정]

-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(2.50%)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.

[세계경제]

- 세계경제를 보면,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었으나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이어졌으며 중국 등 신흥시장국에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.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, 미 연준의 출구전략과 관련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, 주요국 재정건전화 추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남아있다.

세계경제 성장률						주요국 국채금리 ¹⁾				
(전기비연율, %)						(기말 기준, %)				
	12.2/4	3/4	4/4	13.1/4	2/4		13.5월	6월	7월	8.7월
미 국	1.2	2.8	0.1	1.1	1.7	미국	2.13	2.49	2.58	2.60
유로지역	-0.7	-0.4	-2.4	-1.1	..	일본	0.86	0.85	0.80	0.76
일 본	-0.6	-3.6	1.2	4.1	..	독일	1.51	1.73	1.67	1.69
중 국 ¹⁾	7.6	7.4	7.9	7.7	7.5	스페인	4.44	4.77	4.65	4.57
						이탈리아	4.16	4.55	4.41	4.25

주: 1) 전년동기비
자료: Bloomberg, CEIC

주: 1) 10년물
자료: Bloomberg

[실물경제]

- 국내경제를 보면,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하나마 지속되었다.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. 앞으로 GDP갭은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.

실물경제지표

(전년동기대비, %)

	2011	2012	12.4/4	13.1/4	2/4	4월	5월	6월	7월
GDP 성장률	3.7	2.0	1.5	1.5	2.3	-	-	-	-
GDP 민간소비	2.4	1.7	2.7	1.5	1.7	-	-	-	-
소매판매	4.5	2.3	2.5	0.2	1.1	2.0	0.5	0.8	..
(S.A, 전기비)	-	-	(0.4)	(-1.2)	(0.4)	(-0.7)	(0.0)	(0.9)	(..)
GDP 설비투자	3.6	-1.9	-5.2	-11.9	-5.1	-	-	-	-
설비투자지수	4.0	-2.0	-6.9	-15.4	-10.6	-12.1	-11.9	-7.8	..
(S.A, 전기비)	-	-	(0.8)	(-4.5)	(-1.6)	(-3.8)	(0.8)	(4.5)	(..)
GDP 건설투자	-4.7	-2.2	-4.2	2.4	7.1	-	-	-	-
건설기성액	-6.4	-5.8	-5.6	5.2	14.8	19.4	12.6	12.8	..
(S.A, 전기비)	-	-	(1.4)	(4.4)	(6.9)	(9.6)	(-4.0)	(0.4)	(..)
수출(통관)	19.0	-1.3	-0.4	0.4	0.8	0.2	3.1	-1.0	2.6
(일평균, 억달러)	(20.2)	(20.0)	(20.4)	(20.2)	(20.6)	(19.3)	(21.0)	(21.7)	(18.3)
제조업 생산	6.0	0.8	-0.2	-1.8	-0.9	1.4	-1.4	-2.7	..
(S.A, 전기비)	-	-	(3.0)	(-0.9)	(-1.5)	(0.4)	(-0.1)	(0.4)	(..)
서비스업 생산	3.2	1.6	0.8	0.8	1.7	2.6	1.6	1.0	..
취업자수 증감 ¹⁾	415	437	342	257	324	345	265	360	..
(공공부문 ²⁾ 제외)	424	437	377	274	318	333	257	364	..

주: 1) 전년동기대비 증감, 천명(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)

2) 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
[물 가]

-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 전환으로 전월의 1.0%에서 1.4%로 높아졌으며,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의 1.4%에서 1.5%로 소폭 상승하였다.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기상악화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균형, 전년 하반기의 낮은 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현재보다 높아지겠으나, GDP갭이 마이너스를 유지하여 당분간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.

물가상승률

	(전년동월대비, %)				
	13.3월	4월	5월	6월	7월
소비자물가	1.3	1.2	1.0	1.0	1.4
(전월비)	-0.2	-0.1	0.0	-0.1	0.2
▪ 농축수산물	-0.6	0.3	-1.2	-2.3	0.4
(농산물)	1.0	2.2	-1.8	-2.2	0.2
(축산물)	-5.9	-4.4	-1.5	-5.1	-0.4
▪ 공업제품	0.8	0.2	-0.1	0.4	1.4
(석유류)	-2.6	-5.3	-7.4	-5.1	0.3
▪ 서비스	1.5	1.5	1.4	1.3	1.3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1.5	1.4	1.6	1.4	1.5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1.4	1.4	1.3	1.3	1.3

-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하락세를, 지방에서는 오름세를 유지하였다.

주택가격상승률

	(전월비, %)				
	13.3월	4월	5월	6월	7월
주택 매매가격 ¹⁾	0.0 (-0.1)	0.0 (0.1)	0.0 (0.2)	0.0 (0.0)	0.0 (-0.1)
▪ 수도권 ²⁾	-0.2 (-0.2)	-0.1 (0.0)	-0.1 (0.1)	-0.2 (-0.1)	-0.2 (-0.3)
(서울)	-0.2 (-0.1)	-0.1 (0.0)	-0.1 (0.1)	-0.1 (-0.2)	-0.2 (-0.4)
▪ 광역시 ³⁾	0.2 (0.0)	0.2 (0.3)	0.2 (0.2)	0.2 (0.2)	0.2 (0.2)
▪ 지방 ⁴⁾	0.1 (0.1)	0.1 (0.2)	0.1 (0.2)	0.1 (0.1)	0.2 (0.1)
주택 전세가격 ¹⁾	0.4 (0.4)	0.4 (0.5)	0.2 (0.3)	0.2 (0.2)	0.4 (0.3)
▪ 수도권 ²⁾	0.4 (0.5)	0.4 (0.5)	0.2 (0.2)	0.2 (0.2)	0.5 (0.4)
(서울)	0.4 (0.6)	0.3 (0.3)	0.2 (0.2)	0.2 (0.1)	0.5 (0.5)
▪ 광역시 ³⁾	0.5 (0.3)	0.4 (0.6)	0.2 (0.4)	0.2 (0.3)	0.2 (0.3)
▪ 지방 ⁴⁾	0.4 (0.3)	0.4 (0.4)	0.2 (0.3)	0.2 (0.2)	0.3 (0.2)

주: 1) ()내는 한국감정원 지수 기준

2) 서울, 인천, 경기 3)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

4) 한국감정원 지수는 수도권 제외(5대 광역시는 포함)

자료: 국민은행, 한국감정원

[금융시장]

- 금융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.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와 함께 하락한 후 글로벌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였다. 주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전환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소 반락하였으며 환율은 하락하였다.

금리, 주가 및 환율¹⁾

	13.3월	4월	5월	6월	7월	8.7일
CD(91일)금리(%)	2.81	2.81	2.69	2.69	2.66	2.66
국고채(3년)금리(%)	2.52	2.49	2.78	2.88	2.92	2.94
KOSPI	2,004.9	1,964.0	2,001.1	1,863.3	1,914.0	1,878.3
원/달러 환율	1,111.1	1,101.2	1,129.7	1,142.0	1,123.5	1,118.7

주: 1) 기말기준

[향후 정책 방향]

-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의 변화 추이 및 영향과 기준금리 인하 및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, 저성장 지속으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.